

데스크 시각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김미은 문화1부장

여름날, 광주 양림동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옛들은 모녀간의 대화.

“하,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엄마도 그리운 게 있어?” “너 아이 때 키우던 거랑 옛날 힘들었던 시절 같은 게 그리운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힘든 게 그리워?” “그건 나도 모르겠네.”

두 사람은 집 앞에 내걸린 플래카드를 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 8월 이장우 가족에서 열린 ‘순수’의 정추 음악회 공연 타이틀이 바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였다. 김소월의 시 ‘가는 길’에서 따온 구절이다. 한 줄의 글귀가 엄마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게 했고, 그런 엄마를 보던 딸이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차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길. 광화문 교보문고

의 유명한 ‘광화문 글판’이 보인다. ‘제가 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다 저 글귀 참 좋다 했더니 친구가 시를 줄줄 읊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정말 많이 좋아했던 시라며,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 있어/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 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숲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정희성의 ‘숲’)

광천동 사거리에 걸린 글판

막히는 차 안에서 친구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듣는 시. 이런 호사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 자연스레 대학 시절로 옮겨 갔고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자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1991년 2월 광화문 네거리에 처음 내걸린 ‘광화문 글판’엔 그동안 많은 글이 담겼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머머마 한 일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정현중)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고은) 등 마음에 새길 만한 글들이 많다. 최근엔 73

편의 글이 담긴 책자 ‘광화문에서 읽다’느 까다 거닐다’도 나왔다.

광주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광천동 사거리에도 당신을 반기는 글귀가 있다. ‘밝은 광주안과’ 건물 외벽엔 ‘가을, 단풍잎 옷감으로 그대 옷 한 벌 지어 주고 고풍’이라 적힌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여름엔 이런 문구가 걸렸다. ‘부슬부슬, 여름비는 더워야 오고, 뭉클뭉클, 내 마음은 너여야 온다’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걸릴 때면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

병원 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급을 걸고 공모를 진행한다. 여름엔 400편이, 가을엔 700여 편이 응모됐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한 작품씩 응모하기도 하고, 젊은 녀름 노인은 직접 손으로 쓴 종이를 들고 병원을 찾기도 한다. 가을편은 나희덕 시인과 이미란 소설가가 선정 작업을 맡았다.

도시 건물엔 온갖 홍보물이 내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이 병원의 시도는 작지만 의미 있다. 미적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간판, 개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광고물도 도배된 거리 풍경. 한 마디로 ‘시각 공해’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도시의 벽면에 그려지기 시작한 벽화도 지켜볼 때가 있다.

이럴 때 한여름 소낙비 같은 글귀에 몸

도 마음도 열린다. 광주시청, 광주문화재단 등 공공건물에서도 가끔 플래카드를 볼 수 있지만 어쩌면 그리도 공감할 수 없는 글귀들만 걸리는지 신기할 정도다.

마음 울린 미회원들 편지

몇 개월 전에는 취재차 방문했던 서울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시구는 아니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귀를 만났다.

“난 너희들이 정말 부럽다.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가 열심히 청소해 줄 테니. 미회원 일동.” 인쇄된 글 아래 누군가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학생이 미회원분들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음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광화문 글판은 서울 도심의 상징물이 됐다. 계절마다 벽에 내걸린 글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잠시 멈춰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이끄는 글, 지친 도시인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글귀를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건 이런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우리 군의 열병식이 보고 싶다



옥영석 농협삼승유농센터 부장·2005년 수상자

세를 익히고 다리를 씻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듯, 열병식 준비 또한 지루하고 힘든 반복에 반복연습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그 날이 오뉴월이든 한겨울이든 타트인 공간에서 땀별이나 찬바람을 맞으며 연습해야하고, 공간이 넓을수록, 참여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

중국의 열병식은 1만2000명에 달하는 병력에 러시아, 몽골 등 외국군이 참여하는 규모도 놀랍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 미국·러시아·중국만이 운용하는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 첨단무기가 등장할 예정이라니 TV중계라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열병식을 개최하는 중국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자며 국력을 자랑할 테지만 대국 굴기의 위용을 보여 감탄하고 싶은 건 아니다. 언제부터가 우리군의 열병식을 본지가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싶어서다.

10월이면 으레 열리던 여의도의 행사가 잊혀지고 시가행진을 하는 국군의 당당한 보수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1991년 국군의 날이 범정부공휴일에서 제외돼 학생들도 직장인도 등교·출근하는 날이 되었고,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계룡대에서 행사를 하고, 시가행진은 5년에 한 번씩 열게 되었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이를 아는 스탈린은 독일군에 의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한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TV중계까지 명령했다. 늘름한 자국민의 위용에 고무된 스탈린은 사기가 충천해져 독일군을 퇴각시키고, 히틀러는 열병식이 가진 위력을 무시한 대가를 토틈히 치러야만 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미군이 재정부으로 병력을 감축하자, 49만 5천명에 달하는 우리 육군 규모가 서방국가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다 한다. 그렇다면 규모에 걸맞게 전투력을 갖춰야할 것이고 그 전투력은 우리가 군에 대해 갖는 애정

에 비례할 공산이 크다.

‘군(軍)하면 떠올리던 비민주와 경직된 문화 등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자, 우리의 아들로 여겨 격려를 보낼 때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전사로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목함지뢰로 불거진 대치상황만 보아도 그렇듯 대다수의 우리 군인은 건강한 사고와 애국심으로 뭉쳐있다. 20여년 넘게 출대하고 무사해왔던 우리 군에게는 많은 월급과 좋은 전후보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더 큰 사기진작책이 될 것이다.

달포 후면 맞게 될 국군의 날에는 우리군의 씩씩한 걸음과 당당한 구령소리가 들리고 싶다.

수만명이 아니라도 좋고 ICBM이 등장하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을 우리군의 열병식이 오늘따라 정말이지 열나게 보고 싶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광주U대회 성과를 남도관광으로 이어가자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문화적 U대회’로 설정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크게 주효했다.

오늘날 스포츠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 하나의 도시의 모든 관광자원을 총동원, 자신들의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와 도시이미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종합이벤트로 나아가는 추세를 지향하고 있다.

금번 U대회에서는 선수단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코스의 패밀리투어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식영정과 환벽당, 소쇄원을 순회하는 ‘무등산 정자문화권탐방’, 한국의 전통음식과 민속놀이의 진수를 보여준 중심사권역의 ‘전통문화관 탐방’, 천년역사의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김치를 체험하는 ‘광주김치타운 탐방’ 프로그램이 참가선수단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U대회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며 선호한 코스가 한국 고유의 멋과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와 함께 광주에서 초기 기독교문화의 싹이 튼 양림동지역 투어도 있었지만, 외국인 선수단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상당수 서구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하계U대회를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광주전남의 핵심관광자원을 몇 개의 권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엮어내어 남도명품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대단위 숙박시설의 확충, 연계도로망의 구축, 면세점 신설 등의 선결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관광투어를 동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남도명품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안정적인 정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도권과 제주지역으로 편중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안정적인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우리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

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관광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 전략을 설계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발전시키는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광주전남 자치단체들 간의 상호협력의 도출로 지역발전의 강력한 시너지효과와 창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시티투어나 각종 문화시설의 건립과 이용에 있어 자신들의 권역만을 그 범위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다소 변형하게 여겨졌던 ‘소지역주의’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던 터인지라 인접 지자체간의 협동지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광주시와 인접 5개 시군간의 ‘문화관광 지원·협력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되며,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아울러 멋과 정겨움이 넘치는 남도관광의 힘찬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검찰 ‘백마산 승마장 의혹’ 철저히 파헤쳐라

소문이 무성했던 광주시 서구 백마산 구유지 할당 매각과 승마장 불법 허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구유지 매각을 왜 무리하게 추진했는지와 유착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1일 이번 사건과 관련 김 전 서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11명, 승마장 건축주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구유지를 싸게 팔아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공무원의 만류로 김 전 청장이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입찰 예정가격(22억1700만 원)의 58%,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 원)의 89% 수준인 13억여 원의 할당에 구유지를 매각한 것이다.

그러나 무려 5개월을 끌어 온 수사 결과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한 둘이 아니다. 경찰 수사는 김 전 청장이 무리

수를 둔 배경과, 승마장 허가 취득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구 재정이 열악해 재량으로 매각을 추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고작 이를 반박하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을 뿐이다.

질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유착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담당 부서에 접수도 되지 않은 건축 허가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비리의 심층을 더해 주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 조사로 구 재정이 손실을 준 사실 자체는 확인된 만큼 검찰은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특혜와 반대급부는 상식이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비리 구조를 파헤치고, 사실상 드러난다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제대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매주 토요일이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걱정 없이 광주의 금남로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된다.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 개관에 맞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금남로를 걷고 즐길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5일부터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 금남로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금남로 1가에서부터 금남공원까지의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펼쳐지는 명품거리로 가꾼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전당과 인접한 금남로를 ‘문화 1번지’로 조성해 도심 생활화시키는 한편 전당 개관 특수를 이끌어 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동구는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버스킹·아트마켓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계획대로 잘 되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전당을 관람하러 오는 방문객들이 금남로를 둘러보게 된다면 광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쇠락한 도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담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금남로 일대는 예술의 거리 통과 가까운 터미널과 문화·예술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문화적인 명품길로 구현해 내느냐는 것이다. 현재 구상안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 행사가 대부분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로 인해 일부 상점들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차 없는 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볼거리를 물론 전당 주변의 빈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속가능한 명품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국의 전성기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였다. 여왕은 재임 기간 63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연방을 구축했다. 역사가들은 특별히 여왕 재임 기간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였다. 전기 작가 스탠리 웨인트롭은 “빅토리아 여왕은 국민의 애정, 전통에 대한 동경, 그리고 충성심 높은 중산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이례적인 군주제를 유산으로 남겼다”

결혼을 위해 왕위를 포기하면서 동생이자 여왕의 아버지(조지 6세)에게 왕위를 넘겼기 때문이다.

두 여왕은 어머니나 할머니 등 왕실 여성들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 일찍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도 닮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물려받은 영국은 전성기가 지난 ‘지는 해’였다. 아버지 시절 인도가 독립해 ‘황제’라는 칭호도 사라졌고 재임 기간 40여 개 식민지가 영연방에서 독립했다.

올해 89세인 엘리자베스 2세가 오는 9일자로 빅토리아 여왕의 재임 기간을 넘어선다. 만 63년이 넘는 2만3226일의 기록으로, 역대 영국 군주중 가장 재임 기간이 긴 통치자로 등극한다. 이 기간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12명씩 바뀌었고 여왕이 방문한 나라만도 116개국에 달한다.

3년 전 “빨리 왕이 되고 싶다”던 찰스 왕세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일까. 엘리자베스 2세의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를 거리는 왕자’라는 찰스의 기록도 길어질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왕위 계승권은 조지 3세의 네 번째 아들인 켄트공의 딸로 태어났지만 삼촌들이 적장자를 낳지 못하거나 요절하면서 왕관을 물려받았다. 엘리자베스 2세도 큰아버지의 급지된 사망 때문에 왕좌에 올랐다.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 심프슨 여사와

**엘리자베스 2세**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15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